

실속 재테크

인터넷 예금 공동구매

금리 0.1%P라도 더... 단기투자 적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추가 금리인상론이 힘을 얻으면서 은행에 장기적으로 돈을 맡기면 손해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쯤이라도 해본 투자자라면 '인터넷 공동예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른바 '인터넷 공구(공동구매)' 상품이다.

공동구매 정기예금이란 모집 기간 내에 많은 돈이 모일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많으면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용상품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도 최저 3개월부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단기투자에도 적합하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광주은행은 30일까지 10일 동안 총 50억원 한도의 'e-모아 인터넷공동예금'을 한시 판매한다. 최저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모집금액 단위에 따라 최고 연 4.0%의 금리가 확정

최저 3개월 다양한 가입기간에 비과세 혜택도

光銀 연 4% 금리 'e-모아'30일까지 한시 판매

된다.

광주은행은 인터넷공동예금 가입자에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SK에너지, 던킨 도너츠, KFC, 버거킹, 스타벅스 등의 모바일 쿠폰 5000원권 경품에 자동 응모되는 'U패한 이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하나은행도 지난 19일부터 'e-플러스 공동구매정기예금'을 200억원 한도로 판매 중이다. 마감은 이달 말까지다. 가입 금액이 20억원 미만 시 연 3.5%, 20억~40억원은 연 3.6%, 40억~60억원은 연 3.7%, 60억~100억원은 연 3.8%, 100억원 이상은 연 3.9%의 금리가 각각 제공된다. 가입기

간은 1년이며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휴가비 지원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14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1명), 국민관광상품권 50만원(3명),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10명) 등이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최근 최고 연 4.2%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제11차 우리e-공동구매정기예금'을 총 1000억원 한도로 30일까지 판매 중이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저축기간이 3개월과 12개월, 18개월로 다양하고, 가입금액 한도는 없다.

이자 지급방식은 만기 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세금우대(12개월 이상 가입시) 및 생계형 비과세 저축 등 질세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18개월 만기로 가입한 경우 200억원 이상 모집시 연 4.1%의 금리를 제공하며, 우대금리(0.1%포인트) 적용시 연 4.2%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3개월과 12개월 만기인 경우 각각 최고 연 2.8%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도 이달말까지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예금인 'e-그린세이브예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100억원 이상 모집된 경우에는 연 4.1%, 200억원 이상은 연 4.2%, 400억원 이상 모집된 경우에는 연 4.3%의 금리를 지급한다. 1년제 만기 이자지급 방식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500억원 한도까지 판매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코스피 시총 1000조 다시 넘본다

26일 거래기준 977조원

2년 7개월만에 최대치

코스피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신고점이 열릴지 주목된다.

코스닥시장을 더한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4월 1000조원을 넘었다. 여기에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가 실적팔리를 이어가면서 유가증권시장 만으로도 '1000조 고지'를 넘보는 상황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1,769.07로 마감한 2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976조610억원으로 2007년 12월 6일 978조3490억원 이후로 2년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당시 1,953.17보다 180포인트 이상 낮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초대형 상장 등으로 증시 몸집이 불어나면서 현 지수대에서도 1000조원을 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의 상장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지수가 1,810선(2.3% 상승)에 오르면 시가총액은 1000조원을 넘는다. /연합뉴스



광주 축산인 한마음 대회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27일 광주 시 동구 학동 광주축산농협에서 열렸다. 조합장 취임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안명수 조합장은 "학교급식 납품 추진과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27일 광주 시 동구 학동 광주축산농협에서 열렸다. 조합장 취임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안명수 조합장은 "학교급식 납품 추진과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전산발급

국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증금 지급 주력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서신을 보완,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합뉴스



(주)트렉스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열린 '유럽 아웃도어 쇼'에 개설한 부스를 현지인, 바이어 등이 살펴보고 있다. <트렉스타 제공>

트렉스타, 세계브랜드 대열에

국제 아웃도어 신발 랭킹 16위 올라

美·유럽시장 장벽 넘어 내년엔 톱10



'트렉스타'가 세계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 랭킹 16위에 올라 국제적인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다.

27일 (주)트렉스타에 따르면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 그룹인 컴패스(Compass)가 최근 발표한 '2010 국제 아웃도어 신발 시장 랭킹'에서 신발 브랜드 부문 16위를 차지했다.

또 전 세계 아웃도어 신발 점유율 1.6%를 기록해 아시아 업체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다. 아웃도어 신발 시장 랭킹은 스포츠 미디어 그룹인 컴패스가 전세계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

로 세계적인 공신력을 얻고 있다.

토종 브랜드인 트렉스타가 선전한 배경은 끊임없는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개척이다. 지난해 유럽 아웃도어 쇼에서 2만여명의 축제를 분석·개발한 네스핏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 15일 같은 행사에서 후속작을 내놓아 10개국의 거래제의를 받았다.

또 아시아 브랜드 중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전시회에 IST, 아이스락, 넷스핏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아웃도어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의 장벽을 넘었다.

트렉스타는 지난 1994년 브랜드 론칭 후 15년 동안 중국·독일·유

럽·미국 등지에서 열리는 아웃도어 전시회에 참가, 세계 소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돼 트렉스타는 지난 20일 지식경제부와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2010년도 세계일류상품(World Champ)육성사업'에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트렉스타는 이 사업을 계기로 기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기존 시장인 미국·유럽 등 20개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체코 등 동유럽 지역으로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트렉스타 관계자는 "브랜드 랭킹 16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내년 세계 10위권 진입에 이어 3년 뒤 5위, 6년 내 세계 1위 브랜드를 목표로 사업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햇살론' 금리 천차만별

신협·새마을금고 年 10.65%

저축은행 年 8.8%~13.1%

26일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의 금리 수준이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연 10.65%, 저축은행이 13.1%다. 저축은행은 최저 연 8.8%에서 13.1%까지 편차가 매우 큰 상한이며 상호금융사도 금리 상한에 근접한 상품이 많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액 입장에서 볼 때 한 곳만 찾아가는 대신 여러 곳의 서민금융사를 접촉하는 것이 좋고, 그것도 상호금융사에 먼저 문의하고서 저축은행을 나중에 알아보는 것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시한 10가지 대출 조건을 참고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전북에 있는 스타저축은행은 1~3등급이면서 연봉 20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연 8.8%, 3~4등급이면서 연봉 2천만원 미만인 자에

게는 9.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충북의 대명저축은행은 6등급 9.0%, 7~8등급 9.5%, 9~10등급 10.0%의 금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은 상한 금리에 근접한 12%대 후반에서 13.1%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6등급자 12.44%를 시작으로 10등급자에게 12.84%의 금리를 적용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12.74%에서 12.94%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Daeyoung Travel (대아여행사)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he ad includes a header with the slogan '여행의 즐거움은 휘리 타고 떠난다!' and a list of packages with prices. Packages include '여행의 즐거움은 휘리 타고 떠난다!', '여행의 즐거움은 휘리 타고 떠난다!', '여행의 즐거움은 휘리 타고 떠난다!', '여행의 즐거움은 휘리 타고 떠난다!', and '여행의 즐거움은 휘리 타고 떠난다!'. Prices range from ₩339,000 to ₩499,000.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2)514-6226 and 062)382-8203, and the Daeyoung Travel logo.